



중국 의료서비스 수요변화 및 민영건강보험의 동향

김유미 연구원

■ 중국의 공공병원은 시설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아 민영병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공적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어려워 보충적 역할의 민영건강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정부는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보험사들도 수요의 충족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¹⁾로 진입하였으며, 도시화 진행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위생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 총 진료 횟수는 68.9억 회로 전년 대비 9.9%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도시 지역은 농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도시 주민의 1인당 의료비지출은 1,064 위안(2012년)으로 지난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농촌 주민과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짐.
- Burson-Marsteller 조사에 따르면²⁾ 가구소비지출 중 건강관련 지출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67%가 건강관련 지출을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응답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의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및 고급화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시설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아 민영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부담도 커지고 있음.

- 민영병원의 수는 2008-201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여 10,000여 개소에 달하였으며, 진료횟수도 연평균 17.5% 증가하여 공공병원(8.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1) 65세 이상 인구비율 8.9%, 2012년

2) Burson-Marsteller · Kantar Health, "China Healthcare & Wellness Consumer Survey"

-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1994년 3.7%에서 2013년 5.6%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9.5%~1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OECD국가 평균(8.9%)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EY 보고서³⁾에 따르면 의료비지출 증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22%만이 이에 대비하여 충분히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의료비 지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의료비지출 부담을 경감시켜줄 공적건강보험⁴⁾의 보장 수준은 낮으며, 건강보험 재정부족 등의 한계로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적건강보험은 중증질환 및 입원비 위주로 보장해주어 커버리지가 부족하고, 의료기관/약국이 지정되어 있어 보장의 제한이 많음.
- 또한 지역 간 행정 및 수급기준이 상이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타 지역에서는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인구구조 및 환경 변화로 인한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 정부에서도 공공건강보험의 보충수단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민영건강보험은 지방정부 및 민영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해주기 어려운 특정질병이나 재난적인 의료비에 대한 보충적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개인의 의료비지출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최근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민영건강보험의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지난 해 중국 정부는 핵심도시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지역의 주민이 규정에 부합하는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2,400위안(월 200위안) 한도 내에서 세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⁵⁾.
- 알리안츠는 인터넷기업 바이두와 함께 온라인 보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중국 보험사 양광인수는 인터넷과 중증질환 건강보험을 결합한 상품을 선보이는 등 중증질환 보장 관련 상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음.
- 개인의 의료비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기준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은 전체 중국인구의 약 7%에 불과하나 2001-2010년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민영건강보험의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임. [kiri](#)

3) EY(2016), "The ri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China"

4) 공적건강보험은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Urban Employees Basic Medical Insurance, UEBMI)과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Urban Residents Basic Medical Insurance, URBMI), 신농촌합작 의료보험(New Cooperative Medical Service, NCMS)등이 있으며 전체인구의 약 90%가 가입되어 있음.

5)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5.5.21 발전개혁 뉴스